

# 朝鮮時代 畫員과 寫字官, 그리고 兩班 出身 書畫家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그 구도\*

이 훈 상\*\*

- I. 문제 제기
- II. 조선시대 화원과 사자관, 그리고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과 성격
- III.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항목과 그 내용
- IV. 맺음말

## I. 문제 제기

이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조선시대 화원과 사자관, 그리고 양반 출신 서화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하여 그 구도와 내용을 미리 밝힘으로써 연구자들의 기대와 요

---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국외연구과건)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편 이 연구와 관련하여 유익한 조언과 격려를 준 박정혜 교수, 황경문 교수를 비롯하여 최재건 교수님과 김리나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작업은 동아대학교 사학과와 손숙경 선생과 필자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 이에 앞서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의 일람표 등 각종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재정리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원생 박정숙, 조재형, 그리고 졸업생 정익준 등이 2년 이상에 걸쳐 큰 힘을 모아 주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 동아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구를 수렴하여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작업은 이미 오래 전에 착수하여 적지 않은 노력이 들어갔으며, 전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려면 앞으로도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앞서 데이터베이스의 구도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오류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수년 전에 작고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밝혀야 할 것 같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구 한국사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받는 와그너 교수는 장기간에 걸쳐 한국 지배 엘리트에 관심을 갖고 문과급제자와 이들의 씨족 등에 대한 방대한 인맥 지도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중인 계급 등도 연구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조선시대 화원과 사자관 그리고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한 관련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프로젝트였다.<sup>1</sup>

와그너 교수는 역할을 분담하여 조선시대 화원 및 사자관은 자신이, 그리고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한 것은 조선시대사를 전공한 최재건 교수에게 맡겼다. 그런데 3년 이상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한 성과물이 중도에 분실되고 이어 와그너 교수는 중병을 앓다가 작고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못했다. 다행히 화원과 사자관에 대한 초고는 남았는데, 일람표의 형태로 정리된 이 초고는 제명도 없고 와그너 교수 개인만 알 수 있는 기호나 주기로 가득한 미완의 것이었다.<sup>2</sup>

필자는 원래 와그너 교수와 그의 연구 성과를 모아 한글로 번역-출간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 일람표의 검토에 착수한 것은 번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이었다.<sup>3</sup> 처음에는 이 일람표에 화원이나 사자관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조차 알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sup>1</sup> 와그너 교수의 화원과 사자관의 일람표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하여는 필자의 다음 글이 참조된다. 이훈상, 「책거리 그림 작가의 개명 문제와 제작 시기에 대한 재고찰」, 에드워드 와그너, 손숙경·이훈상 옮김, 『조선왕조의 성취와 귀족』, 일조각, 근간. 한편 와그너 교수의 잡과-중인 계급의 성과와 그 의미에 대하여는 필자의 다음 두 글들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이훈상, 「에드워드 와그너의 조선시대 연구와 이를 둘러싼 논점들」, 『역사비평』 (2002년 여름호) 및 “Edward W. Wagner: The Father of Korean Studies in West”, *Review of Korean Studies* 7-3 (September 2004), pp.117-132.

<sup>2</sup> 이 일람표에 대하여는 필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한 후 여기에 첨부할 목적 아래 쓴 논문의 초고에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훈상, 「조선시대 화원과 사자관」(제명은 임시로 붙인 것임). 여기에는 이 일람표의 중요성과 함께 오류와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이 일람표는 많은 검토와 정리를 거쳐 비로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일부 기호나 주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sup>3</sup> 이 번역서는 와그너 교수가 쓴 19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현재 출간 중에 있다. 여기에는 잡과-중인과 관련된 논문이 모두 네 편 수록되어 있는데, 화원이나 사자관 등의 연구에도 유익한 것이라 생각한다. 에드워드 와그너, 손숙경·이훈상 옮김, 앞의 책.

이때 와그너 교수의 병은 크게 진전되어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결국 필자는 관련연구 성과와 활용한 자료를 검토하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다. 처음에는 미완으로 그친 이 작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려 했으나 더욱 확대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정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이후 양반 출신이 아니면서 이름이 알려진 화가나 서예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화원이나 사자관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조선 후기 이후 대부분 잡과-중인 宗族 (lineages) 출신으로서 한양의 특정 지역에 모여 살면서 점차 배타적 통혼권을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세습하는 경향도 뚜렷하여 졌다. 이렇듯 잡과-중인 계급과 나머지 계급들 사이의 경계가 굳어지면서 화원이나 사자관들의 사회적 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근친들과의 관계는 양식이나 기예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실제로 이것은 작가가 확인되는 일부 그림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화원이나 사자관 및 이들의 작품들을 잡과-중인 계급은 물론 이들 내부의 親族 (kinship)이나 親屬 (kindred)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국 미술사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에 상응할 만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실제로 이들 연구에 결정적이라 할 『姓源錄』이나 『姓源錄續編』을 비롯하여 중인들의 각종 계보 자료나 방목 등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사회사의 성과를 간과함으로써 불확실한 정보 등을 토대로 상상력이 앞서는 사례도 자주 산견된다. 인상적인 기술을 넘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사회관계나 제도 등에 대한 분석은 미술사 연구에서도 부수적이거나 기초적이라는 필수적인 기초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잡과-중인 계급은 물론 화원이나 사자관 등의 친족이나 친속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구축된 와그너 교수의 화원과 사자관에 관한 정리 작업은 한국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지표의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 작업은 단순히 사실의 축적에 기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미술사와 사회사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등 학제적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전망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와그너 교수의 화원과 사자관에 대한 일람표가 화원과 사자관에 대한 잡다한 정보를 집성한 것이 아니며 화원과 회화에 대한 실제 연구 경험에 기초한 체계적인 작업임을 강조하고 싶다.

와그너 교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잡과-중인 계급에 대한 지표의 하나로서 화원이나 사자관 가문에 주목한 바 있다. 이를 기초로 조선 후기 이후 특정 가문에서 화원이나 사자관을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변화에 상응하여 새로운 미술 양식이 친족 또는 친속 중심으로 수용되고 발전하는 양상을 미술사 연구자 케이 블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밝혀냈다.<sup>4</sup> 속화의 하

나로 꼽히는 책거리 그림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그것인데, 이것은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이 새로운 미술 양식의 수용과 발전에 큰 역할을 했음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와그너 교수의 작업은 미술사와 사회사와의 조우의 중요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위에서 수행되었던 것이다.<sup>5</sup>

다만 그의 일람표가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시대의 모든 화원과 사자관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의례를 통하여 확인되는 방대한 수의 화원과 사자관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그 대신 그는 19세기 중엽 당시 잡과-중인 계급에서 이제 막 편찬하기 시작한 계보 자료나 방목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여기에 수록된 화원과 사자관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덕분에 이 일람표는 이제까지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 잡는 데 그치지 않고 19세기 중엽 당시 잡과-중인 가문이나 계급에서 전승되어 온 화원이나 사자관들에 대한 관련 지식을 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사에서 화원이나 사자관들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체계적으로 집성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세기 중엽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이 속한 잡과-중인 계급에서 전기물을 비롯하여 각종 계보 등을 편찬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으며 그 후 20세기 전반에 한국미술사의 표준화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근역서화징』의 기초가 되었다. 한국사에서 화원과 사자관, 그리고 이들의 작품에 대한 지식의 계보를 시기별로 재현하는 일은 미술사는 물론 사회사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되므로 와그너 교수의 일람표는 우리 학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필자는 조선시대 화원과 사자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세 종류로 만들고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한 것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 세 종류의 화원과 사자관의 대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

<sup>4</sup> Kay E. Black & Edward W. Wagner, "Ch'aekkōry Paintings: A Korean Jigsaw Puzzle", *Archives of Asian Arts* 46 (New York: Archives of the Chinese Art Society of America, 1993), pp.63-75; "Court Style Ch'aekkōry", Kumja P. Kim & Michael Morrison, Eds, *Hope and Aspiration: Decorative Painting of Korea* (San Francisco: Art Museum of San Francisco, 1998).

<sup>5</sup> 블랙 케이 및 와그너 교수가 책거리 그림에 관하여 함께 쓴 논문 중 "Ch'aekkōry Paintings: A Korean Jigsaw Puzzle"은 책거리 그림 양식의 수용 및 발전과 관련하여 전주 이씨 출신의 화원 李亨祿(李亨祿은 李膺祿으로 개명하고 이어 다시 李宅均으로 개명하였다.)을 중심으로 같은 가문 및 친속 출신의 화원들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는 李亨祿의 개명 순서 등을 잘못 추론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이 논문은 사회사와 미술사와의 조우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는 필자의 다음 글이 참조된다. 이훈상, 「책거리 그림 작가의 개명 문제와 제작 시기에 대한 재고찰」, 손숙경·이훈상 옮김, 『조선왕조사회의 성취와 귀속』.

세기 중엽 잡과-중인계급에서 기억하거나 전승되어 온 회원이나 사자관들에 대한 지식을 재현한 데이터베이스이다(편의상 데이터베이스 I로 부른다). 이것은 와그너 교수의 성과를 기초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가공하는 형태로 완성할 예정이다. 또 하나는 19세기 중엽 이후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20세기 전반에 회원과 사자관을 선별하여 집성한 『근역 서화징』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이다(편의상 데이터베이스 II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이 책에 수록한 회원과 사자관들을 기계적으로 분석하여 가공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鑄型을 짜려 한다. 마지막으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한 조선시대의 모든 회원과 사자관을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다(이것은 데이터베이스 III으로 부른다). 끝으로 이들 외에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한 것은 회원 및 사자관의 그것들과는 다른 구도 아래 별개의 것으로 구축할 예정이다(이것은 데이터베이스 IV로 부르기로 한다).

이렇듯 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은 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에 공통으로 설정하는 항목과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추어 각기 달리 설정하는 항목으로 나누되 각 항목은 일정 범주 아래 묶도록 한다. 이 중 공통으로 설정하는 항목은 와그너 교수가 설정한 것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어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각기 달리 추가하는 항목은 각 데이터베이스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제까지 활용하지 않았거나 새로 발굴한 자료를 분석하여 입력하게 된다.

잡과-중인 계급들에 대한 학계의 성과를 고려할 때 와그너 교수가 방대한 정보를 찾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얼마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을 바쳤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들 계급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성격상 연구 기관이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으로는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결국 와그너 교수는 어느 누구나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피하고 싶은 고독한 작업에 생애의 마지막을 바친 셈이다. 미완으로 그친 프로젝트를 단순히 보완하고 교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체계적으로 확대-재편하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도 와그너 교수의 선행 작업이 없었더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II. 조선시대 화원과 사자관, 그리고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성과 성격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술사 연구에서 현재까지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는 화원들이나 사자관들은 대부분 20세기 전반에 편찬된 『근역서화징』에 전기가 수록된 인물들이다. 여기에는 화원과 사자관 186명이 올라있다. 그런데 최근 이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화원이나 사자관들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화원의 경우 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얻어졌는데, 하나는 계보 등 주로 사찬 자료 등이며 또 하나는 의궤 등 관찬 자료 등이다. 이 중 전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와그너 교수가, 후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정혜 교수가 수행하였는데,<sup>6</sup> 이 중 와그너 교수의 작업 내용은 이제까지 한국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와그너 교수는 『성원록』나 『성원록속편』을 비롯하여 『충주유씨세보』나 『전주이씨족보』 등 잡과-중인 계급의 족보 등 계보 자료와 잡과 방목 등을 대상으로 모두 827명을 찾아서 관련지식을 집성하였다. 이 중 641명은 『근역서화징』에 전기가 올라 있지 않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류들이다. 827명 중 화원은 약 348명을 상회하며 그 나머지는 사자관 등이다(827명 중에는 화원으로 표기된 348명 외에 사자관과 화원으로 동시에 표기된 인물이 16명, 미상으로 처리한 33명이 있으므로 실제 화원의 수는 348명을 상회할 것이다).<sup>7</sup> 한편 박정혜 교수는 의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약 1684명을 찾아냈다(박정혜 교수가 찾은 1684명 중에는 같은 인물이 이름을 달리 썼는데 각기 다른 인물로 취급한 사례가 산견된다. 19세기 이후 改名은 널리 만연된 현상이며 화원이나 사자관들에게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적을 것 같다).

한편 와그너 교수가 정리한 화원 중 108명은 박정혜 교수가 정리한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전체 화원의 규모는 와그너 교수가 새로 찾은 108명과 박정혜 교수가 의궤에서 찾아 정리한 1,684명을 합한 약 1,792명 정도가 되는 셈이다(와

<sup>6</sup> 朴廷憲,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美術史研究』 9(미술사연구회, 1995), pp.203-290.

<sup>7</sup> 화원인지 사자관인지 전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없는 인물을 왜 와그너 교수가 이 범주에 포함시켰는지 의문이 남아 있다. 다만 와그너 교수가 최재건 교수와 함께 양반 출신의 서화가들을 오랫동안 걸쳐 연구하였으므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38명이 분명히 양반 출신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믿어진다.

그녀 교수가 미상으로 처리한 33명이 사자관인지 회원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들 중 일부는 회원에 새로 추가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것은 관련자료가 드물어 더 찾을 가능성이 없지만, 조선 후기의 경우, 아직 활용 못한 의뢰나 각종 계보 자료 등에서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체 회원의 수는 일단 1800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사자관의 경우, 와그너 교수는 440명 정도를 찾아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자관과 회원으로 동시에 표기된 인물은 모두 16명이며, 기타 미상은 모두 33명이므로 실제로는 440명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와그너 교수의 일람표만을 놓고 볼 때 사자관은 회원 보다 30% 가량 많다. 이와 같은 비율이 다른 자료들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사자관이 회원보다 훨씬 많은 사실은 『근역서화징』에서도 확인된다. 대부분의 의뢰를 검토한 결과도 마찬가지인데, 의뢰의 분석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사자관의 수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위의 비율보다 낮추어 잡는다고 하더라도 2천명 이상은 상회할 것 같다.

사자관의 역할과 활동, 이들과 관련된 제도와 운영 기제 등은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다.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를 통한 연구 성과의 축적과 좋은 대조가 된다. 최근 『사자청선생안』을 발굴하여 이를 분석한 성과가 나오는 등 진전이 있지만, 사회사나 제도사적인 측면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여전히 많이 모자란다.<sup>8</sup> 이러한 점은 사자관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정리를 요구하는 이 프로젝트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

사자관도 회원과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이후 잡과-중인 가문에서 집중 배출되었다. 그리고 시기가 내려오면서 사자관을 집중 배출한 가문들과 회원들을 집중 배출한 가문들이 점차 분화한다는 사실은 이미 『畫寫兩家譜』를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9</sup> 한편 사자관을 집중-배출한 가문들의 경우 다른 기술관 직책으로의 출입이 기술관 배출 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것은 회원을 집중-배출한 가문들과도 다른 특징이다. 그렇더라도 사자관 역시 점차 특정 종족에서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진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사자관으로의 진출 기회뿐만 아니라 기예의 수용과 발전에 있어서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한 층위는 중요한 것 같다. 따라서 사자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하여 그 제도와

<sup>8</sup> 金斗憲, 「『寫字廳先生案』과 조선시대 寫字官의 신분」, 『古文書研究』 24(한국고문서학회, 2004, 2).

<sup>9</sup> 吳世昌, 『畫寫兩家譜錄』(필사본, 1916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위창문고 古4402-5); 활자본, 金宇正 著, 『李朝繪畫』別卷(知識産業社, 1975).

운영 기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야 한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대상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 1,800명 이상과 사자관 2,000명 이상으로 잡아 모두 3,800명을 훨씬 상회한다고 할 경우, 『근역서화징』이나 『회조질사』 또는 『이향견문록』 등에 전기가 올라 있는 부류들은 모두 186명이므로 5%가 채 되지 않는 셈이다. 그러므로 그 나머지 95% 이상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부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95%를 훨씬 상회하는 회원이나 사자관의 경우, 작품은 물론 각 개인에 대한 관련정보를 찾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근역서화징』 등에 전기가 오를 정도로 널리 알려진 회원이나 사자관들조차 정보가 불충분하며 잘못 알려진 사실도 적지 않으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류들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최근 잡과-중인 계층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많이 축적되어 회원과 사자관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지만, 이들 각 개인에 대한 관련정보를 모으는 데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들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자료란 주로 족보 등 계보 자료를 일컫는데, 문제는 이들을 개인이 소장한 사례가 적지 않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잡과-중인 종족들이 자신들의 世系만을 모은 독립된 족보를 출간하는 대신 대부분 자신들의 세계를 씨족들의 족보에 편입시켰던 것도 찾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것은 잡과-중인 계급뿐 아니라 향리 등 조선 후기 2차 집단이라 할 이들 계급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世系들을 찾으려면 대부분의 족보를 관련자료와 대조하여 일일이 검토하여야 한다. 이들의 世系를 수록한 족보들을 얼마만큼 찾을 수 있는지, 찾아내더라도 이들 족보들이 찾는 데 들인 공력에 상응할 만큼 가치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한양유씨세보』의 발굴을 통하여 이형록 등에 관한 소중한 사실을 밝힐 수 있었고 이것이 그의 작품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계보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19세기 중엽 이후 이들의 활발한 계보 자료의 편찬 동향과 지금까지의 발굴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가능성을 믿고 계속 찾아다녀야 한다.

한편 각 가문에서 편찬한 계보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큰 행운이지만, 이미 알려진 중요한 자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크게 다행인 것은 잡과-중인 계급의 종합보라고 할 수 있는 『姓源錄』이 남아있어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이나 사자관은 물론 각종 기술관의 역임 여부와 더불어 字나 號, 결혼 관계나 생년 등을 기재하여 놓았다. 이 책은 『근역서화징』을 편찬한 吳世昌의 삼촌

이며 저명한 역과 종족인 旌善 李氏 출신의 李昌鉉이 철종 재위(1849-1863) 기간에 대부분을 편찬한 것이다. 1030쪽에 이르는 이 책은 사실상 모든 주요한 잡과 중인 가문의 계보를 발췌하여 포괄한 종합보라고 할 수 있다. 편찬자의 목표의 하나는 할 수 있는 한 잡과 시험에 합격한 모든 사례 및 圖書署과 寫字廳의 직책에 선발된 사례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성원록』은 잡과 시험을 비롯하여 화원이나 사자관 선임 등과 관련된 선정 과정을 지배한 잡과-중인 종족들을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의 하나가 된다.<sup>10</sup>

한편 거의 똑같은 형태의 편찬 자료인 『姓源錄續編』(“종족 기원에 대한 기록의 속편”)이라는 題名이 필사본이 있는데, 이것은 잡과-중인 종족 자료를 5권으로 묶은 것으로서, 다양한 체재 속에 世系圖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sup>11</sup> 『성원록속편』의 세계도들은 『성원록』 자체의 요약된 세계도보다 더 풍요로운 자료지만 속편의 포괄 범위는 일부 종족들에 국한되며, 이들은 거의 모두가 『성원록』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와그너 교수는 속편 각 권의 표지에 붙은 첩지에는 이 속편이 이전에 “惠石 李淳命 舊藏本”이라고 적혀 있지만, 『성원록속편』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중인 종족의 편찬물의 속편이 분명한 것 같다고 논의한다.<sup>12</sup>

『성원록』이나 『성원록속편』 등은 중인 신분의 모든 종족들의 世系를 빠짐없이 수록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19세기 중엽에 잡과-중인 계급들 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종족 중심으로 이들 종족의 기억과 지식을 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외에 와그너 교수가 활용한 『書寫兩家譜』나 『합천이씨족보』, 『전주이씨족보』, 『한양유씨족보』, 『해주김씨족보』 등 다양한 잡과-중인 종족의 족보도 위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이후 잡과-중인 계급 중 성공한 가문들의 위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와그너 교수의 일람표를 19세기 중엽 이후 잡과-중인 종족들 사이에서 선택적

<sup>10</sup> 『姓源錄』을 비롯하여 잡과-중인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에 대하여는 에드워드 와그너의 『雜科-中人 宗族들의 발달과 근대 이후의 운명』을 비롯하여 잡과-중인과 관련된 세 편의 논문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에드워드 와그너, 손숙경·이훈상 역, 『조선왕조사회의 성취와 귀속』(일조각, 근간). 한편 『姓源錄』에 대한 해제도 도움이 된다. 金良洙, 「解題」, 『姓源錄』(民昌文化社, 1995)를 참조할 것. 이 책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sup>11</sup> 『姓源錄續編』은 하버드 대학교의 엔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엔칭도서관 청구번호: K2290.4/4382).

<sup>12</sup> 에드워드 와그너는 李淳命이 『姓源錄』의 주요한 편찬자인 李昌鉉의 아들인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에는 대략 1860년경부터 연도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같은 형태의 더 방대하고 기초적인 작업의 연속일 뿐 아니라 그것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한 부분일 뿐이라고 한다. 에드워드 와그너, 「조선왕조의 중인계급 연구」, 『조선왕조사회의 성취와 귀속』(일조각, 근간).

으로 기억되고 전승되는 화원이나 사자관에 대한 정보를 재구성한 지식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수록된 이들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근역서화징』이나 『韓國書畫人名辭典』 또는 『韓國繪畫大事典』 등에 전기가 수록된 부류들이며 또 하나는 위의 책에서 전기를 찾을 수 없는 부류들이다. 전기를 찾을 수 없는 부류들을 전기가 있는 부류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들은 19세기 중엽에 잡과·중인 가문들이 화원이나 사자관을 역임한 사실을 기억하고 기록한 사실로 미루어 의뢰에서 오로지 성명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화원들이나 사자관들과는 달리 작품이나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잠정적으로 화원이나 사자관을 크게 세 범주로 접근하는 것은 이 분야의 연구에 유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구도에 따라 화원과 사자관을 여러 범주로 재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면 연구자는 이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와그너 교수가 일람표에 설정한 항목 외에 여러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근역서화징』에 전기가 수록되었는지의 여부, 사자관의 경우 『사자청선생안』에 성명이 올라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자비대령을 역임하였는가의 여부 등이 그것이다.

이 작업을 기초로 두 번째로 착수하려는 데이터베이스Ⅱ는 『근역서화징』에 수록된 화원과 사자관들이 중심이다. 이들의 구조는 앞의 것과 동일하지만, 그 외에 이들이 어떻게 선정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정보를 새로 추가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이 한국 미술사에서 회화와 서예의 표준화된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의 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체하여 새롭게 재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역서화징』에서 참조한 『회조질사』나 『이향건문록』 등의 평가가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를 주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여기에 『사자청선생안』이나 자비대령의 역임 여부를 추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근역서화징』이 한국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여기에 수록된 인물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새로운 사실도 추가하려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들 각각의 世系圖를 포함시킬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특히 父系 중심의 세계도에 혼인 관계까지 반영한다면 연구자들에게는 크게 유용하지 않을까? 이 경우 『성원록』이나 『성원록속편』에 수록된 세계도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상이 186명에 이르며 또한 이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작업의 추진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최근 이 방면의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진전은 있지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필자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계보 자료를 분석하여야 하므로 世系圖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는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회원과 사자관을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며 이 작업은 이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대상은 3800명을 훨씬 상회한다. 이들 각각에 대하여 와그너 교수가 827명을 처리한 방식에 따라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서 정리하여야 한다. 회원이나 사자관들이 같은 잡과-중인 계급에 속하지만 정부 내에서 그 역할과 운영 기제가 각기 달랐던 만큼 이들을 각기 따로 연구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양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작업하는 입장이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편리할 것 같다.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회원이나 사자관들의 데이터베이스와는 별개로 만들 예정이다. 그 대상은 와그너 교수와 최재건 교수가 선정한 409명이다. 그동안 축적된 개별 작품 중심의 연구나 서화가 개인에 대한 연구 성과를 널리 참조하였으므로 선정 기준에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기존 연구를 재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은 아니다. 출신 배경이나 이력 등에 대한 기본 사실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상 이것을 바로 잡고 보완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해당 시대의 가치와 미의식을 재현하는 데 적합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앞서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한 연구 성과가 분실된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후 어느 정도는 복원하였지만, 그동안 축적된 많은 성과를 참조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37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 “와그너-송준호 문과방목 프로젝트”라는 제명의 조선시대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므로, 이와 연동하여 재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이 중 문과급제자의 CD는 나왔지만, 서둘러 출시한 탓에 사용에는 불편하다).

물론 양반 출신 서화가들을 모두 위의 프로젝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일단 이들이 조선시대 주요 엘리트들의 인맥지도에 포함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논의 자체도 이들의 사회적 배경과 출계, 그리고 이들의 의식 구조를 이해하는 또 다른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방식과 내용을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로 설정하려 한다. 다만 작품 활동과 관련하여 양반 출신 서화가들의 교유 관계 및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인간 집단에 대한 또 다른 질적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여 추가할 수 있는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 III.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항목과 그 내용

와그너 교수의 일람표를 구성하는 항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원과 사자관을 대상으로 한 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적용되며 그 외에 각 데이터베이스에는 특성에 맞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게 된다. 이 중 공통 항목의 경우, 크게 네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화원이나 사자관 자신을 중심으로 한 범주, 부친 및 근친 내 인물을 중심으로 한 범주, 전거를 밝혀놓은 범주, 마지막으로 앞의 정보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나 새로운 전거를 제시한 범주가 그것이다. 한편 필자가 새로 추가하는 항목들은 따로 한 범주를 만들 예정이므로 각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다섯 범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중 일부 범주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먼저 두 번째 범주의 경우 근친 내 인물은 이 일람표에 나오는 화원이거나 사자관, 또는 잡과 등에 합격한 사실을 기준으로 적출한 사실이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는 일람표에 적출한 인물 및 그 사적이 전하는 문헌을 전거로서 제시하였는데, 그 전거는 성격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 먼저 『姓源錄』과 『姓源錄續篇』과 같이 19세기 중엽의 전승 내지는 지식을 보여주는 것들과 金榮胤의 『韓國書畫人名辭典』 및 劉復烈의 『韓國繪畫大觀』 등 해방 이후 나온 종합적인 성과물이다.<sup>13</sup>

한편 네 번째 범주는 기타라는 제명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중인 가문에서 편찬한 계보 자료를 비롯한 새로운 전거를 통하여 밝혀진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에 알려진 사실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밝혀 놓을 예정이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안휘준 교수의 「歷代畫家譜略」을 주요한 참고 대상인 동시에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歷代畫家譜略」이 『韓國繪畫大觀』 이후 가장 최근에 나온 종합적인 정리성과이기 때문이라 그랬을 것이다.<sup>14</sup>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설명 순서에 따른 디렉토리(directory)를 기본으로 삼아 이것을 구성하는 범주들과 각 항목을 간략하게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sup>13</sup> 金榮胤, 『韓國書畫人名辭典』(漢陽文化社, 1959); 『韓國書畫人名辭書』 3권(藝術春秋社, 1974) 및 劉復烈, 『韓國繪畫大觀』(文教院, 1969); 재판(三正出版社, 1973).

<sup>14</sup> 安輝濬, 「歷代畫家譜略」, 『韓國繪畫史』(一志社, 1980), pp.351-412.

## 첫째 범주

1-1. 일련의 번호: 회원과 사자관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1-2. 성명: 한자를 달리 쓰거나 개명한 경우에는 기타에 주기하였다. 1-3. 관련인물 I: 와그너 교수는 부(또는 생부) 및 근친 인물을 따로 설정하여 이를 “근친 내 인물”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정리하였다. 한편 이와 구분하여 또 달리 관련 있는 인물을 摘出하여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관련인물 I”이다. 한편 관련이 있으면서도 이와는 구분되는 부류들을 또 다른 범주로 구분하여 摘出하였다. 이것은 항목5로 설정하여 “관련인물 II”로 제명을 달았다. 원래 관련인물 I 이나 관련인물 II는 와그너 교수가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고 성명과 본관 옆에 일람표 내 각 인물의 번호를 주기한 것을 매우 중요하므로 새로 항목으로 만들어 정리한 것이다. 양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경우 분명하지 않다. 이들 항목에는 드물지만 전거를 제시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1-4. 본관. 1-5. 관련인물 II: 앞의 항목 3을 참조. 1-6. 생졸년: 미상의 경우 물음표 표시를 했다. 1-7. 字, 1-8. 號, 1-9. 과거 합격 여부/관력: 과거 합격 연도와 합격한 시험의 종류를 정리하여 놓았다. 더불어 여기에는 관직 경력도 밝혀놓았다.

## 둘째 범주

2-1. 부의 성명, 2-2. 생부의 성명, 2-2. 부의 과거 합격 여부/관력: 부가 회원이나 사자관으로서 이 일람표에 나올 경우, 해당 번호를 명기하였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과거에 합격했을 경우 합격 연도와 시험 종류, 그리고 관직 경력 및 생존 연도를 밝혀놓았다. 2-3. 생부의 과거 합격 여부/관력: 생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그 내용은 2-2를 그대로 따른다. 2-4. 근척 내 인물: 근척 중 1명을 적출하였는데, 이들을 선정한 기준은 일차적으로 이 일람표에 나오는 인물이거나 또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 각종 과거, 이 중에서도 특히 잡과 합격 여부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同壻, 同壻의 父, 妹夫, 妹夫의 堂姪, 妹의 媵父, 兄, 弟, 從弟, 從兄, 從兄弟, 再從兄 再從兄의 妻父, 三從兄, 三從弟, 外從兄, 伯父, 從伯父, 伯母의 父, 叔父, 叔父의 妻男, 叔父의 外孫, 姑母夫, 三從叔, 祖, 祖母의 父, 從祖, 族祖, 曾祖, 從曾祖, 曾祖의 妹夫, 高祖, 外祖, 外祖의 兄, 外祖의 弟, 外祖의 從孫, 妻姪, 妻의 從兄弟, 妻의 姨從兄, 妻父, 妻父의 六寸, 後妻父, 妻祖, 妻叔, 妻伯父, 妻男, 後妻男, 養子, 子の 妻父, 子婦의 從叔, 婿, 婿의 兄, 婿의 弟, 婿의 再從兄弟, 孫, 孫의 婿, 外孫, 曾孫, 外曾孫, 姪, 從姪, 甥姪, 姪壻). 이 점은 이 일람표에 수록된 인물들의 동질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2-5. 근척 내 인물의 과거 합격 및 일람표의 순번: 위의 항목 2-4에 선정된 인물이 일람표에 나올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명기하였으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과거

합격 연도와 시험의 종류,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인물은 관력을 밝혀놓았다.

### 셋째 범주

3-1. 『姓源錄』: 『姓源錄』의 해당 쪽을 표시하고 이어 해당 쪽에 수록된 서화 직책을 밝혀놓을 예정이다. 3-2. 『姓源錄續篇』: 『姓源錄續篇』의 해당 쪽을 표시하고, 해당 쪽에 수록된 서화 직책을 명기하였다. 3-3. 金榮胤, 『韓國書畫人名辭典』: 해당 쪽과 더불어 서예로서 알려진 인물은 ○, 그림으로서 알려진 인물은 ●, 서예와 그림 모두로서 알려진 인물은 ●로 표시하였다. 3-4. 劉復烈 편저, 『韓國繪畫大觀』: 해당 쪽을 표시하였다.

### 넷째 범주

여기에는 새로 추가한 정보나 문제점, 나아가 새로운 전거를 제시한다. 전거 중 잡과-중인 각 가문에서 편찬한 각종 계보 자료나 방목 등을 여기에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 이들의 내용과 가치는 데이터베이스 I을 완성하여 내놓을 때 첨부하여야 할 논문에서 상세하게 언급할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합천이씨족보』, 『전주이씨족보』, 『한양유씨족보』, 『해주김씨족보』 등 비롯하여 많은 계보 자료 등을 전거로 제시하였다는 정도로 그치기로 한다. 이들 자료들은 특히 중요 전거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 다섯째 범주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추어 와그너 교수가 설정한 항목 외에 필자가 따로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이려고 한다. 『근역서화징』이나 『사자청선생안』 등에 수록되었는가의 여부는 물론 자비대령의 역임 여부를 포함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다만 자비대령 등과 관련된 중요성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다행이지만 다른 자료들의 경우 여전히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양반 출신 서화가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와그너교수와 송준호 교수가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정보를 분류하는 지표를 채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02 시험 날짜(국왕, 국왕의 재위 년도: 서기), 03 시험 유형, 04 방목에서의 등급, 05 급제 당시의 지위나 직함 또는 소과 급제나 급제 당시 다른 직역, 06 성씨, 07 이름, 08 개명한 경우 개명한 이

름, 09 항렬자, 10 자字, 11 출생 연도, 12 사망 연도와 사망 당시의 나이, 13 부父, 15 조부, 17 증조부, 19 외조부外祖父, 22 처부妻父, 25 養子일 경우에는 生父, 27 生祖父, 29 生증조부生曾祖父, 31 생외조부生外祖父, 34 후처後妻의 父, 37 최고 관직 경력, 38 소과小科와 급제 연도, 39 재시험(重試)과 급제 연도, 40 특기할 만한 사회 지위(서자)를 포함하여 시험 과정과 관련된 다른 데이터, 41 本貫, 42 시험 당시의 거주지, 43 아호, 44 諡號, 56 위 사항에 대해 추가되거나 다른 데이터(예를 들면 왕실 종친에 대하여 수여하는 직함이나 항렬자), 57 급제자의 씨족 중 문과에 급제한 가까운 친족들의 이름(위에 기록된 부계父系 직계의 3대 선조들은 제외함), 58 하나 이상의 방목에 수록된 정치, 전쟁, 가문 또는 과거 제도와 관련된 일화 자료에 대한 언급, 59 사제 관계, 특정 지역으로의 퇴거 또는 제시된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한 편찬자의 언급 등과 같은 잡다한 정보, 01 인용 전거(3권의 종합 방목 및 세 권으로 축약된 족보인 『萬姓大同譜』의 수록 위치)

궁극적으로는 각 데이터베이스를 누구나 쉽게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에 앞서 각 데이터베이스를 인덱스(index)와 디렉토리(directory)로 정리하여 내놓는 일이 필요하다. 기본이 되는 것은 성명을 기준으로 한 인덱스로서 이것은 한글 자모순으로 만들게 된다. 한편 디렉토리의 경우, 성씨(clan sort), 생년(serial [chronological] sequence), 號, 字를 단위로 한 것이 필요하다. 거주지별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은 화원이나 사자관들이 조선 후기 이후 거의 대부분 수도 한양에 거주하였고 그렇지 않은 사례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우므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한편 3,800명을 훨씬 상회하는 화원과 사자관을 집대성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각종 디렉토리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은 성명 외에 출신 씨족이나 생년, 자 및 호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모으고 정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양반 출신 서화가들의 경우, 성씨별, 지역별, 연도별 디렉토리를 작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송준호와 와그너의 조선시대 지배 엘리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물의 경우 거주지를 비롯하여 개인의 관련정보를 찾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거주지 정보의 경우 거주지보다는 본관을 우선 기재하는 조선시대의 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거주지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경우 더욱 힘들다. 그렇더라도 이들 디렉토리들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하여 분명히 새로운 전망을 제공할 것이다.

## IV. 맺음말

아직도 연구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일부 사실만으로도 이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문제 제기에 도움이 된다. 먼저 특정 종족들의 독점-세습 경향에도 불구하고 화원이나 사자관의 세계에 새로운 부류들이 지속적으로 충원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원의 세계에 진입하기를 원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부류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좋은 사례의 하나가 바로 판소리 개작자로 잘 알려진 고창의 향리 신재효 가문일 것이다. 그의 사촌 형은 도화서의 생도로서 입속하였으나 결국 화원의 세계에는 진입하지 못한 사실이 최근 고문서에서 확인되었다.<sup>15</sup> 이것은 화원과 사자관을 집중-배출하는 특정 종족들의 헤게모니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류들이 지속적으로 화원과 사자관의 세계에 진입하려 한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역동성에 따른 긴장이 화원들의 세계나 작품의 생산 기제에 어떻게 작용하였을까?

한편 조선 후기 이후 화원과 사자관이 한양에 거주하는 이들로서 주로 충원되고 세습하면서 이른바 지방 배경을 가진 화원이나 사자관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동시대의 중국에서와 같이 지역 중심의 화파들이 존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럴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중앙 중심의 화원이나 사자관 양성 제도의 확대 및 한양 출신들의 독점도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은 한국미술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들 일련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손쉽게 찾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사에서 출발한 일련의 물음들이 한국미술사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는 사실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사와 미술사의 조우를 강조하는 이 프로젝트는 화원과 사자관 그리고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가공하여 공유하려는 것이 중요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각 개인에 대한 출신배경과 교유관계 및 평가체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지식과 정보를 새롭게 발굴하고 종합하여야 하는 데, 이것은 작품의 생산 기제는 물론 전근대 한국의 기록화의 전통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

<sup>15</sup> 이훈상, 「19세기 전라도 고창의 향리세계와 신재효: 신재효 가문 소장 고문서 자료를 통하여 본 신재효의 사회 지위와 판소리의 발전」, 『고문서연구』 26(한국고문서학회, 2005. 2), p.15.

최근 각 개인의 행위와 의식을 좀 더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영역이 개척되면서 종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무명의 인물들이나 작품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간과된 대다수의 화원이나 사자관 등을 망라하는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집성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소박한 기대가 미완으로 그친 와그너 교수의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었다. 연구자들의 비판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통하여 이 프로젝트가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주제어(key words) \_\_ 화원, 사자관, 그리고 양반 출신 서화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on Government Artists, Scribes, Literati artists, and Literati Calligraphers), 화원(Government Artists, 사자관(Scribes), 양반 출신 화가(Literati Artists), 양반 출신 서예가(Literati Calligrapher)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조선시대 화원과 사자관, 그리고 양반 출신 서화기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하여 이 프로젝트의 구도와 내용을 미리 밝힘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조 아래 데이터베이스의 학문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조선시대 모든 화원, 사자관, 그리고 양반 출신 서화가 각 개인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와 지식을 집성하였으며 이것을 어떠한 구도와 체계 아래 추진하였는가를 상술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 목표는 확인할 수 있는 한 모든 화원이나 사자관, 그리고 양반 출신 서화기들에 대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집성하고 분류하여 이를 효용성 높은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완성하는 것이다. 특히 화원과 사자관의 경우, 종래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이들이 최근 확인되었으나 아직도 화원이나 사자관 전부가 밝혀진 것은 아니며 그 대부분도 성명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이 프로젝트는 모든 화원과 사자관을 대상으로 이들 각 개인에 대한 정보나 관련 지식을 집성하는 것을 지향하며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점은 양반 출신 서화기들에게도 해당한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성과를 한국미술사의 그것과 접합하여 보다 적용성 높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이들의 경력과 사회 배경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화원이나 사자관의 경우 잡과-중인 계층에서 이들을 집중-배출되면서 특정 미술 양식의 수용과 발전 등에서 친족(kinship)이나 친속(kindred)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이어 앞으로 만들 네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구조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이 중 화원과 사자관에 대한 것은 모두 세 종류로서, 먼저 화원과 사자관에 대한 정보 등을 처음으로 집성하기 시작한 19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한 것, 두 번째는 『權域書畫徵』과 같이 한국 서화의 통사가 최초로 출간된 20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한 것, 마지막으로 모든 화원과 사자관을 집성한 것으로 구성된다. 요컨대 각 데이터베이스는 각 시대의 지식 체계에 대응하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짠 것이다. 한편 양반 출신 서화기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최근 완성된 문과급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왕조의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로 차용하여 적용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프로젝트는 하버드 대학교의 고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의 선행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을 지적하고 그 성과와 의의, 그리고 한계에 대하여도 덧붙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각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내용과 구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각종 정보나 지식을 어떠한 분류 체계 아래 정리하여 제시할 것인가가 논의의 중심이며 특히 여기에는 각 개인과 이들이 속한 집단 사이의 관계를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작업에서 활용하거나 활용할 각종 자료 등도 검토하였는데, 이것은 이들과 관련된 우리들의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요컨대 이 작업은 화원과 사자관에 대한 현재의 지식이 언제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어떠한 지식이 필요할까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4천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시대 화원과 사자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전근대 한국의 기록화의 전통과 생산 기제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과 다면적인 접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20세기 전반에 편찬된 『근역서화징』에 전기가 수록되어 연구자들이 통상 활용하는 화원이나 사자관이 186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방대한 것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더불어 양반 출신 서화가 409명에 대한 것도 병행하므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조선시대 서화가 모두에 대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각 개인에 대하여 실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지식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가공되고 있다. 이것이 실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라는 사실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리 그 구도를 제시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수렴하는 것이 노력의 중복을 막고 모든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연구는 이를 위한 정지 작업인 것이다.

**ABSTRACT**

The Construction of Databases on Academy Painters, Scribes, and  
Literati Painters and Calligraphers of the Joseon Dynasty

**Lee Hoonsang**

This paper concerns the construction of database on (1) academy painters, (2) scribes, and (3) literati painters calligraphers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process, it aims to conduct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connecting social history and art histor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historical knowledge concerning the above three groups of artists, I attempt to create four kinds of databases. Three of these concern approximately 4000 academy painters and scribes. With the three databases I have tried to explore the conception of these groups in each period. The fourth database treats 409 literati painters and calligraphers. Constructing these materials was based on the database work by the late Edward Wagner on ruling elites in the Joseon dynasty. Wagner contributed greatly in providing a sound groundwork. Primarily he made accessible the materials he collected, and organized them in a database on the people who passed the Miscellaneous Examinations and another one on academy painters and scribes of the late Joseon period. The latter features in the form of a catalog a total of 827 painters and calligraphers employed in the government along with information about their immediate families and households. These databases thus created on the basis of Wagner's work will no doubt be an important milestone for researched in Korean art history. Moreo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academy painters and scribes were mostly from the middle-people clans, who passed the

Miscellaneous Examinations, they will also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es on them.